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GALLUP KOREA DAILY OPINION

정치 - 경제 - 사회 - 생활 - 문화
매주 새로운 Opinion Index를 제공합니다.

빈부 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 | 2014년 9월 23~25일

우리나라 빈부 격차 문제의 심각성 • 빈곤의 원인 - 개인 vs. 환경 •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증세 • 부자 증세 • 피케티 부유세 주장에 대한 의견

2014년 9월 23~25일 • 휴대전화 RDD 조사 • 유효표본 전국 성인 1,001명 • 표본오차 $\pm 3.1\%$ 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56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응답률 제고를 위해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RDD를 기본 표본 프레임으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집전화 RDD 조사를 병행하며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 한국갤럽 유무선 RDD 혼합조사설계, 선거여론조사 관련 연구논문

한국갤럽은 2010년 이후 유선전화(일반 집전화)와 무선전화(휴대전화) RDD 조사 과정과 결과를 수차례 비교 연구해 왔습니다. 조사 방법론에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논문을 참고해주시고. (아래 링크는 모바일기기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PC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 [가중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의 편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조사연구 2014.5 15권 2호\)](#)
- [무선RDD 전화조사의 타당성 검토 연구\(조사연구 2013.11 14권 3호\)](#)
- [선거시기 여론조사 정확성 제고 방안\(연론중재 2012 여름호 특집논문\)](#)
- [유무선 RDD를 결합한 혼합조사설계: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측조사 사례 연구](#)

40
조사역사 40년





한국갤럽 박무익 회장/설립자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974년 문을 연 저희 연구소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40년간 얻은 명성은 저희 조사에 협조해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저희는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2012년부터 자체 기획, 운영하는 정치 지표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매주 제공해 왔습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정치,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한민국 대표 오피니언 인덱스로

한 단계 더 흥미로운 자료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 하나를 제공하고자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갤럽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정하고 신뢰 받는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1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대표하여

박 무 익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갤럽은 1974년 6월 박무익 회장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인 형태 조사 전문 회사입니다.

1980년대부터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우리 국민 71%가 한국갤럽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의 특징

2012년 1월부터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휴대전화 RDD 조사를 연중 실시해 그 결과를 매주 금요일 공개합니다.

조사의 중립성, 지속성, 대표성을 확보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필요하신 분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중립성**: 정치권, 이해 관계자, 특정 언론의 의뢰가 아닌, **한국갤럽이 자체 기획, 운영, 공개**합니다.

- **지속성**: 특정 이벤트, 특정 시기, 단 하루의 조사 표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조사**합니다.

- **대표성**: 전국 유권자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조사 방법 / 지표 산출 방법

한국갤럽 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매일 300명, 매주 1,000명 이상 유효표본을 확보합니다.

매일 수집한 데이터는 지역, 성, 연령 특성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사후 가중처리합니다.

- 하루 데이터는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림(Rim) 가중

- 일일(Daily) 지표는 당일과 직전 이틀 데이터를 3일 이동 평균(3-day-rolling average)

- 주간(Weekly) 지표는 월~목 데이터를 통합해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셀(Cell) 가중

표본오차/해석 시 주의사항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일일 지표, 주간 지표의 표본크기는 1,000명 이상입니다.

유효 표본크기 6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pm 4.0\%$ 포인트, 1,000명일 때 $\pm 3.1\%$ 포인트, 1,200명일 때 $\pm 2.8\%$ 포인트입니다.

표본오차 이외에도 불완전한 표본추출률, 응답 거절, 질문에 대한 혼동 등 조사 과정 중 발생하는 비표본오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표본오차는 이런 요인을 배제하고 비교적 완전한 표본추출률에서 확률추출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문의 한국갤럽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 [한국갤럽 홈페이지 Q&A](#)

※ 2012년에는 매주 1,500명 이상 조사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조사결과를 공개했으나, 2013년부터는 매주 1,000명 이상 조사하고 그 주 금요일 조사결과를 공개합니다.

빈부 격차 심각성, 빈곤의 원인

질문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빈부 격차 심각성				
	사례수 (명)	매우 심각하다	어느 정도 심각하다	심각하다 (계)	전혀+별로 심각하지 않다(계)	모름/ 응답거절
1985년 4월 6~14일	1,205	53%	32%	85%	5%	14%
1999년 12월 23일	1,557	76%	18%	93%	7%	0%
2014년 9월 23~25일	1,001	56%	30%	86%	12%	2%
지역별						
서울	204	56%	31%	87%	11%	2%
인천/경기	290	57%	30%	87%	11%	1%
강원	30	-	-	-	-	-
대전/세종/충청	102	58%	29%	86%	11%	2%
광주/전라	102	65%	23%	88%	12%	1%
대구/경북	103	47%	36%	82%	14%	3%
부산/울산/경남	158	51%	32%	83%	15%	2%
제주	11	-	-	-	-	-
성별						
남성	496	57%	28%	85%	14%	2%
여성	505	54%	33%	87%	10%	2%
연령별						
19~29세	182	41%	41%	83%	16%	1%
30대	194	61%	30%	90%	9%	0%
40대	214	67%	24%	91%	9%	1%
50대	196	60%	27%	87%	12%	1%
60세 이상	216	49%	31%	80%	15%	6%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447	47%	31%	79%	18%	3%
새정치민주연합	217	64%	30%	94%	6%	1%
없음/의견유보	282	61%	30%	91%	8%	1%
직업별						
농/임/어업	30	-	-	-	-	-
자영업	140	66%	24%	90%	7%	3%
블루칼라	135	63%	25%	89%	9%	2%
화이트칼라	292	56%	31%	87%	13%	0%
가정주부	242	53%	34%	86%	11%	2%
학생	85	41%	40%	81%	19%	0%
무직/은퇴/기타	77	41%	32%	74%	20%	6%
생활수준별						
상/중상	118	43%	35%	79%	21%	0%
중	362	52%	32%	84%	14%	1%
중하	316	59%	30%	89%	8%	3%
하	200	65%	24%	89%	9%	2%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1985년 '모름/응답거절'에는 빈부 격차 심각성 '보통이다' 9% 포함. 1999년은 IMF 구제금융 시기

질문 귀하의 주위를 보면,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 부족 때문에 가난한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노력해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한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십니까?

		빈곤의 원인		
	사례수 (명)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	환경 때문	모름/ 응답거절
1990년 7월 20~30일	1,500	38%	52%	10%
2014년 9월 23~25일	1,001	30%	65%	5%
지역별				
서울	204	28%	66%	6%
인천/경기	290	29%	67%	4%
강원	30	-	-	-
대전/세종/충청	102	32%	63%	4%
광주/전라	102	28%	69%	2%
대구/경북	103	37%	54%	8%
부산/울산/경남	158	28%	64%	8%
제주	11	-	-	-
성별				
남성	496	34%	60%	5%
여성	505	26%	69%	5%
연령별				
19~29세	182	27%	69%	4%
30대	194	24%	70%	6%
40대	214	22%	74%	4%
50대	196	40%	57%	2%
60세 이상	216	38%	53%	9%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447	41%	52%	7%
새정치민주연합	217	21%	77%	2%
없음/의견유보	282	22%	73%	5%
직업별				
농/임/어업	30	-	-	-
자영업	140	37%	58%	5%
블루칼라	135	26%	69%	5%
화이트칼라	292	31%	65%	4%
가정주부	242	28%	66%	6%
학생	85	29%	68%	2%
무직/은퇴/기타	77	30%	61%	9%
생활수준별				
상/중상	118	36%	62%	2%
중	362	35%	59%	6%
중하	316	26%	68%	6%
하	200	25%	71%	5%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증세

질문) 만약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내야 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 수 없습니까?

		빈부 격차 해소 위해 두 배 이상 세금 부담			
		사례수 (명)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 수 없다	모름/ 응답거절
1990년 7월 20~30일		1,500	26%	63%	11%
2014년 9월 23~25일		1,001	22%	75%	3%
지역별	서울	204	17%	79%	4%
	인천/경기	290	22%	75%	3%
	강원	30	-	-	-
	대전/세종/충청	102	29%	69%	2%
	광주/전라	102	28%	70%	2%
	대구/경북	103	17%	83%	0%
	부산/울산/경남	158	26%	71%	3%
	제주	11	-	-	-
	제주	11	-	-	-
성별	남성	496	24%	73%	3%
	여성	505	20%	77%	2%
연령별	19-29세	182	25%	72%	4%
	30대	194	29%	70%	1%
	40대	214	24%	73%	3%
	50대	196	20%	77%	3%
	60세 이상	216	14%	83%	3%
	60세 이상	216	14%	83%	3%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447	19%	79%	2%
	새정치민주연합	217	27%	70%	3%
	없음/의견유보	282	21%	76%	3%
직업별	농/임/어업	30	-	-	-
	자영업	140	26%	70%	4%
	블루칼라	135	24%	76%	0%
	화이트칼라	292	25%	73%	2%
	가정주부	242	15%	83%	2%
	학생	85	26%	71%	3%
	무직/은퇴/기타	77	19%	73%	8%
	무직/은퇴/기타	77	19%	73%	8%
	무직/은퇴/기타	77	19%	73%	8%
생활수준별	상/중상	118	25%	74%	1%
	중	362	23%	75%	2%
	중하	316	22%	74%	3%
	하	200	20%	77%	3%
	하	200	20%	77%	3%
빈곤의 원인	개인 노력 부족	303	19%	79%	2%
	환경 때문	646	24%	73%	3%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질문) 그럼, 부자들에게 세금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빈부 격차 해소 위해 부자들에게 두 배 이상 과세			
		사례수 (명)	찬성	반대	모름/응답거절
2014년 9월 23~25일					
전체		1,001	76%	21%	4%
지역별	서울	204	71%	25%	5%
	인천/경기	290	77%	20%	3%
	강원	30	-	-	-
	대전/세종/충청	102	76%	23%	1%
	광주/전라	102	80%	13%	7%
	대구/경북	103	69%	27%	4%
	부산/울산/경남	158	81%	16%	3%
	제주	11	-	-	-
	제주	11	-	-	-
성별	남성	496	74%	22%	4%
	여성	505	77%	19%	3%
연령별	19-29세	182	70%	28%	2%
	30대	194	79%	17%	5%
	40대	214	84%	13%	3%
	50대	196	75%	21%	4%
	60세 이상	216	69%	25%	6%
	60세 이상	216	69%	25%	6%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447	72%	25%	3%
	새정치민주연합	217	85%	12%	3%
	없음/의견유보	282	72%	22%	6%
직업별	농/임/어업	30	-	-	-
	자영업	140	79%	16%	5%
	블루칼라	135	84%	14%	2%
	화이트칼라	292	74%	23%	3%
	가정주부	242	78%	18%	4%
	학생	85	71%	26%	3%
	무직/은퇴/기타	77	57%	35%	8%
	무직/은퇴/기타	77	57%	35%	8%
	무직/은퇴/기타	77	57%	35%	8%
생활수준별	상/중상	118	69%	26%	5%
	중	362	72%	25%	2%
	중하	316	83%	13%	4%
	하	200	74%	22%	5%
	하	200	74%	22%	5%
빈곤의 원인	개인 노력 부족	303	68%	28%	4%
	환경 때문	646	81%	16%	3%
본인 세금	받아들이겠다	223	93%	6%	1%
	그럴 수 없다	752	70%	25%	4%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2014년 3월 24~27일 <부자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부자의 자산 규모로는 평균 25억,
본인이 부자가 될 가능성 '(많아+어느 정도) 있다' 33%, '(전혀+별로) 없다' 61%,
'준경할 만한 부자 많지 않다' 66%,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번 부자 많다' 63%로 응답

질문) 최근 피케티라는 학자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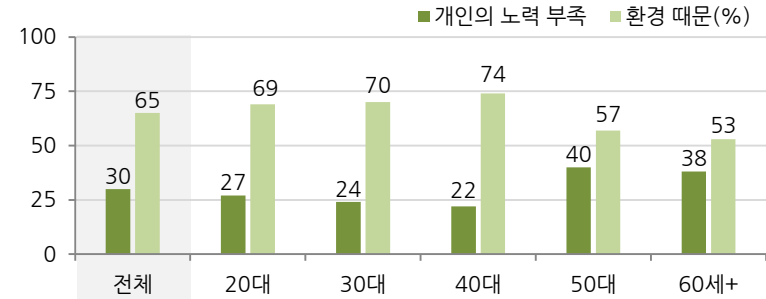
소득 상위 1% 부자들에게 최고 8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는데요.

귀하는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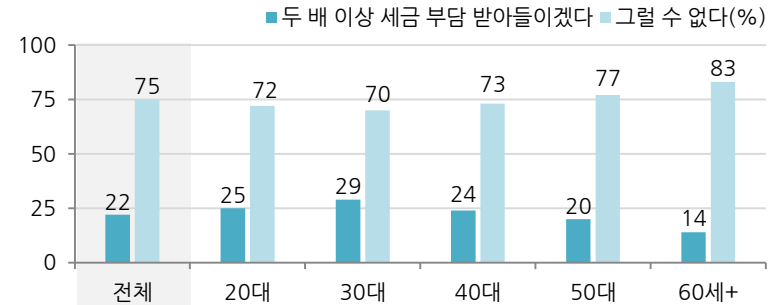
2014년 9월 23~25일		사례수 (명)	소득 상위 1% 부자들에게 최고 80% 과세 주장		
			찬성	반대	모름/응답거절
전체		1,001	47%	46%	7%
지역별	서울	204	49%	46%	5%
	인천/경기	290	47%	46%	7%
	강원	30	-	-	-
	대전/세종/충청	102	49%	40%	12%
	광주/전라	102	59%	38%	3%
	대구/경북	103	39%	52%	9%
	부산/울산/경남	158	45%	48%	7%
	제주	11	-	-	-
	제주	11	-	-	-
성별	남성	496	45%	50%	5%
	여성	505	50%	41%	9%
연령별	19-29세	182	43%	54%	3%
	30대	194	47%	50%	3%
	40대	214	50%	45%	5%
	50대	196	55%	36%	9%
	60세 이상	216	42%	43%	14%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447	40%	51%	9%
	새정치민주연합	217	58%	39%	3%
	없음/의견유보	282	49%	44%	8%
직업별	농/임/어업	30	-	-	-
	자영업	140	47%	46%	6%
	블루칼라	135	53%	42%	5%
	화이트칼라	292	46%	51%	3%
	가정주부	242	49%	38%	13%
	학생	85	41%	55%	4%
	무직/은퇴/기타	77	41%	47%	12%
	무직/은퇴/기타	77	41%	47%	12%
생활수준별	상/중상	118	42%	56%	2%
	중	362	42%	53%	5%
	중하	316	54%	38%	8%
	하	200	52%	37%	11%
빈곤의 원인	개인 노력 부족	303	39%	54%	7%
	환경 때문	646	53%	40%	7%
부자에게	과세 찬성	756	58%	37%	6%
	과세 반대	207	15%	77%	9%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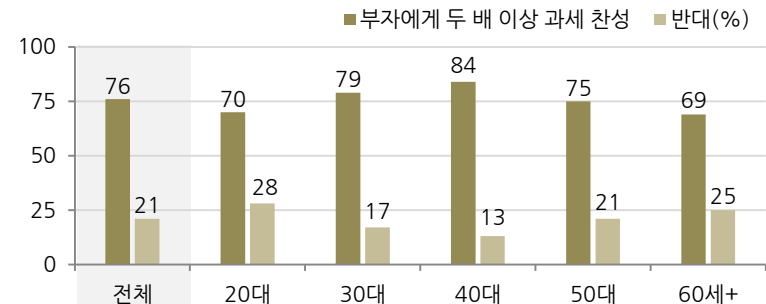
◎ 빈곤의 원인 - 2014년 9월 23~25일



◎ 빈부 격차 해소 위해 두 배 이상 본인 세금 부담 - 2014년 9월 23~25일



◎ 빈부 격차 해소 위해 부자에게 두 배 이상 과세 - 2014년 9월 23~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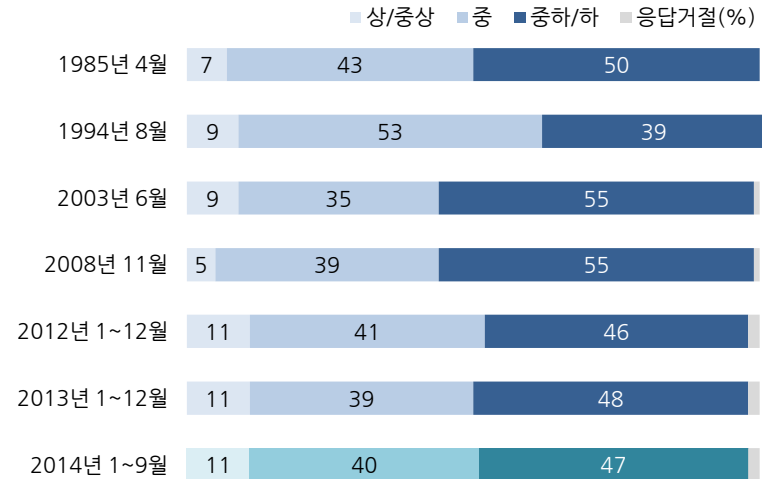


주관적 생활수준

2014년 1~9월 통합		사레수 (명)	주관적 생활수준					모름/ 응답거절
			상/중상	중	중하	하	중하/하 (계)	
전체		37,977	11%	40%	27%	20%	47%	2%
지역별	서울	7,779	14%	40%	26%	17%	43%	2%
	인천/경기	10,977	11%	39%	29%	19%	48%	2%
	강원	1,157	9%	36%	29%	24%	53%	2%
	대전/세종/충청	3,871	11%	40%	26%	21%	47%	2%
	광주/전라	3,868	8%	37%	27%	25%	52%	3%
	대구/경북	3,902	9%	41%	26%	22%	48%	2%
	부산/울산/경남	5,997	11%	42%	26%	20%	46%	2%
	제주	425	15%	41%	25%	16%	41%	3%
성별	남성	18,820	11%	38%	28%	21%	49%	2%
	여성	19,157	11%	41%	26%	19%	45%	3%
연령별	19~29세	6,744	16%	48%	26%	8%	34%	2%
	30대	7,473	12%	43%	31%	13%	44%	1%
	40대	8,254	12%	40%	29%	17%	47%	1%
	50대	7,450	12%	38%	26%	23%	49%	2%
	60세 이상	8,056	6%	30%	23%	36%	59%	5%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15,898	12%	40%	25%	21%	46%	2%
	새정치민주연합	9,521	12%	41%	31%	16%	47%	1%
	통합진보당	838	11%	41%	32%	15%	47%	1%
	정의당	905	11%	39%	36%	13%	49%	0%
	기타 정당	358	12%	38%	29%	20%	49%	1%
	없음/의견유보	10,456	10%	38%	27%	23%	49%	3%
직업별	농/임/어업	1,206	5%	32%	23%	37%	60%	3%
	자영업	5,164	11%	38%	29%	21%	50%	1%
	블루칼라	4,709	5%	30%	31%	32%	63%	2%
	화이트칼라	11,304	15%	45%	29%	10%	39%	1%
	가정주부	9,091	10%	38%	24%	25%	49%	3%
	학생	3,393	19%	51%	23%	5%	28%	1%
	무직/은퇴/기타	3,111	8%	32%	24%	32%	56%	4%
월별	1월 통합	4,650	11%	38%	28%	21%	49%	2%
	2월 통합	4,854	11%	42%	27%	18%	45%	2%
	3월 통합	4,643	12%	39%	27%	20%	47%	2%
	4월 통합	4,518	11%	41%	27%	20%	46%	3%
	5월 통합	4,217	11%	41%	24%	21%	45%	3%
	6월 통합	3,014	12%	39%	28%	20%	48%	2%
	7월 통합	5,054	12%	38%	28%	21%	49%	2%
	8월 통합	4,012	11%	40%	28%	19%	47%	2%
	9월 통합	3,015	12%	38%	28%	20%	48%	2%

*매주 실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통합 결과

◎ 주관적 생활수준 - 1985년 이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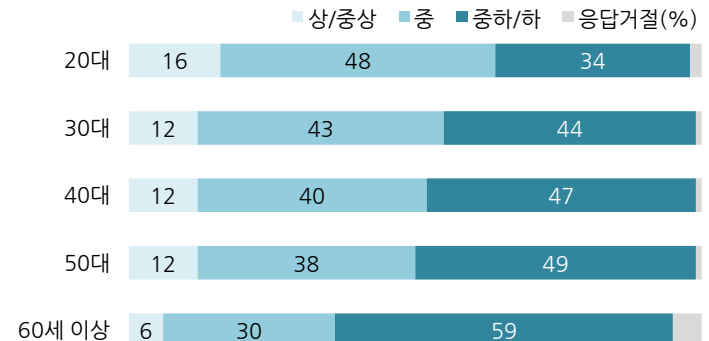
질문)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면
귀 닥의 생활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94년은 문민정부 초 호황기

*2003년은 IMF, 닷컴 버블 붕괴 영향 시기, 2008년은 세계 금융 위기 상황

*2012년 이후는 매주 실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통합 결과

◎ 주관적 생활수준: 연령별 - 2014년 1~9월 통합



응답자 특성표

주요 분석 단위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 기준)와 지역/성/지지정당/직업/생활수준과 연령 분포 구성입니다. 2014년 3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8개 권역/성/연령별 가중 처리 결과.

질문 귀하는 어느 시도에 살고 계십니까? 주소지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화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지역을 알지 못합니다.)

질문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질문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질문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면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특성표 2014년 9월 23~25일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값 배율 (B/A)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사례수 (명)(A)	비율	사례수 (명)(B)	비율		
전체	1,001	100%	1,001	100%	1.00	±3.1%P
지역별						
서울	238	24%	204	20%	0.86	±6.4%P
인천/경기	259	26%	290	29%	1.12	±6.1%P
강원	32	3%	30	3%	0.95	±17.3%P
대전/세종/충청	99	10%	102	10%	1.03	±9.8%P
광주/전라	107	11%	102	10%	0.95	±9.5%P
대구/경북	98	10%	103	10%	1.05	±9.9%P
부산/울산/경남	158	16%	158	16%	1.00	±7.8%P
제주	10	1%	11	1%	1.13	±31.0%P
성별						
남성	549	55%	496	50%	0.90	±4.2%P
여성	452	45%	505	50%	1.12	±4.6%P
연령별						
19~29세	159	16%	182	18%	1.15	±7.8%P
30대	166	17%	194	19%	1.17	±7.6%P
40대	214	21%	214	21%	1.00	±6.7%P
50대	233	23%	196	20%	0.84	±6.4%P
60세 이상	229	23%	216	22%	0.94	±6.5%P
주요 지지						
새누리당	474	47%	447	45%		±4.5%P
새정치민주연합	199	20%	217	22%		±6.9%P
정당별						
없음/의견유보	276	28%	282	28%		±5.9%P
직업별						
농/임/어업	37	4%	30	3%		±16.1%P
자영업	153	15%	140	14%		±7.9%P
블루칼라	143	14%	135	14%		±8.2%P
화이트칼라	283	28%	292	29%		±5.8%P
가정주부	220	22%	242	24%		±6.6%P
학생	74	7%	85	8%		±11.4%P
무직/은퇴/기타	91	9%	77	8%		±10.3%P
생활 수준별						
상/중상	110	11%	118	12%		±9.3%P
중	365	36%	362	36%		±5.1%P
중하	303	30%	316	32%		±5.6%P
하	216	22%	200	20%		±6.7%P

*표본오차는 조사완료 사례수 기준.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2014년 9월 23~25일	조사완료 사례수 (명)	목표할당 사례수	주민등록인구 기준 가중 처리 후 결과				
			연령 분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전체	1,001	1,001	18%	19%	21%	20%	22%
지역별							
서울	238	204	19%	21%	21%	19%	20%
인천/경기	259	290	18%	21%	24%	19%	18%
강원	32	30	-	-	-	-	-
대전/세종/충청	99	102	17%	19%	21%	19%	23%
광주/전라	107	102	16%	17%	21%	19%	27%
대구/경북	98	103	17%	17%	21%	20%	25%
부산/울산/경남	158	158	17%	18%	21%	21%	22%
제주	10	11	-	-	-	-	-
성별							
남성	549	496	19%	20%	22%	20%	19%
여성	452	505	17%	19%	21%	19%	24%
주요 지지							
새누리당	474	447	10%	13%	18%	25%	34%
새정치민주연합	199	217	23%	29%	22%	12%	13%
정당별							
없음/의견유보	276	282	25%	19%	26%	17%	13%
직업별							
농/임/어업	37	30	-	-	-	-	-
자영업	153	140	4%	11%	36%	32%	17%
블루칼라	143	135	16%	16%	22%	33%	14%
화이트칼라	283	292	20%	40%	25%	12%	3%
가정주부	220	242	1%	14%	21%	23%	40%
학생	74	85	98%	2%	0%	0%	0%
무직/은퇴/기타	91	77	13%	5%	7%	12%	62%
생활 수준별							
상/중상	110	118	33%	22%	23%	13%	9%
중	365	362	22%	19%	20%	20%	19%
중하	303	316	16%	24%	23%	19%	19%
하	216	200	7%	11%	20%	23%	38%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한국갤럽은 1974년 6월 박무익 회장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인 형태 조사 전문 회사입니다.

1980년대부터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우리 국민의 71%가 한국갤럽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2012년부터 조사의 중립성, 지속성, 대표성을 확보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분이든 누구나, 무료로, 매주 금요일, 한국갤럽 홈페이지 www.gallup.co.kr 에서 새로운 결과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중립성: 정치권, 이해 관계자, 특정 언론의 의뢰가 아닌, 한국갤럽이 자체 기획, 운영, 공개합니다.
- 지속성: 특정 이벤트, 특정 시기, 단 하루의 조사 표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매주 추적 조사합니다.
- 대표성: 전국 유권자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무선 RDD 표본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무작위로 생성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한국갤럽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 매일 300명, 매주 1,000명 이상 유효표본을 확보합니다.

매일 수집한 데이터는 지역, 성, 연령 특성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사후 가중처리합니다.

- 하루 데이터는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림(Rim) 가중
- 일일(Daily) 지표는 당일과 직전 이틀 데이터를 3일 이동 평균(3-day-rolling average)
- 주간(weekly) 지표는 월~목 데이터를 통합해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셀(cell) 가중

한국갤럽 조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한국갤럽의 자산이므로 상업적 용도의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문의: 한국갤럽 02-3702-2100(대폰)/2571/2621/2622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Q&A